

한국물리학회 대중강연

LHC-21세기 과학혁명을 꿈꾼다



- 시간 : 2009년 4월 23일 (목) 19:30
- 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202호

강연 1. 쿼크, 우주 그리고 LHC
최수용 교수 (성균관대)

강연 2. 신의 입자를 찾아서
이종필 박사 (고등과학원)

강연 1. 쿼크, 우주 그리고 LHC

최수용 교수 (성균관대)

2008년 9월에 가동된 유럽 CERN 연구소의 거대 강입자 가속기 (LHC) 실험에서 21세기 새로운 물리학의 탄생을 기대한다. CERN 연구소는 80년대에 W, Z 입자들의 발견이 이뤄진 곳으로 전통적으로 입자물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LHC 가속기 및 여러 실험 장치들을 통해서 미니 블랙홀, 초대칭 현상 등의 새로운 현상과 입자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발견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 이들의 중요성과 의미, 실험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강연한다.

최수용 교수님

Fermi 연구소 D0 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탑 쿼크의 스핀에 관한 연구로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04~2006년 동안 D0 실험에서 힉스입자 탐색 그룹의 리더로 활동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연 2. 신의 입자를 찾아서

이종필 박사 (고등과학원)

탈레스 이래 2600년에 걸친 수수께끼가 이제 막 풀리려고 한다. 세상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지난 40년 간 인류가 써 내려간 모범답안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마지막 답안지의 채점 결과가 드디어 공개된다.

그것은 바로 모든 소립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신의 입자, 곧 힉스 입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신의 입자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스티븐 호킹이 선뜻 100달러 내기를 걸었던 그 문제, 곧 '신의 입자를 찾아나선 인류의 대장정을 소개한다.

이종필 박사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입자물리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신의 입자를 찾아서』가 있고 스티븐 와인버그의 『최종이론의 꿈』을 번역했다.